

현대 중국의 국가주의, 중국몽(中国梦), 그리고 남성성*

이응철**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성성: 몇 가지 사례들 |
| II. 중국의 남성성들: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변화에 대한 짧은 요약 | IV. 가부장제와 중국몽 |
| III. 중국의 국가주의, 애국주의와 남 | V. 나가는 글 |

| 논문요약 |

최근 중국에서는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의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에서 강조하는 남성성을 검토하고 이것이 현대 중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고자 한다.

많은 사회에서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한 전형적 태도들이 있는데 사실 남성성 혹은 여성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며 변화한다. 고대 중국에서 남성은 문/무의 이분법으로 설명되었다가 사회주의 혁명을 거치면서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남성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최근 국가주의나 애국주의와 관련하여서는 구원자, 보호자로서의 남성, 강한 남성이 강조되고 '여성화된 남성성'은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남성성에 대한 강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는 중국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특히 강한 국가로의 발전과 개인의 번영을 연결시키는 중국몽은 책임과 능력을 갖추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가장이라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부장제의 태도는 국가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된다.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에서 재현되는 남성성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 본 연구는 2021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전공 교수

한편, 중국 사회에서 남성성의 강조는 이미 공고해져버린 사회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애국주의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경우 젠더정치를 포함한 중국 내부의 문제들은 덜 중시될 우려가 있다.

· 주제어: 현대중국, 국가주의, 남성성, 가부장제, 중국몽

I. 들어가며

1984년 클라이드 프랭클린(Clyde Franklin)은 *The Changing Definition of Masculinity*라는 책에서 젠더 이분법에 기초하여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징을 구분하여 목록화한 바 있다. 남성적인 특징에는 ‘공격적, 독립적,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객관적인, 자신감 있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작은 위기에 당황하지 않는, 능동적인, 논리적인, 모험적, 절대 울지 않는, 지도적인 행동, 지배적인, 야심적인, 경쟁적인’ 등이 포함되었고 여성적 특징으로는 ‘강한 표현을 삼가는, 수다스런, 부드러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은, 관습적인, 조용한, 예술과 문학에 조예가 있는, 다정다감한 감정을 잘 드러내는’ 등이 제시되었다(허라금 2000, 97-98).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도 중국을 포함한 많은 사회에서 어떤 특성을 특정 성별의 이상적인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송대(宋代)에는 그 이전에 비해 부드럽고 조용하며 무예보다는 글과 그림에 능한 남성을 이상적으로 생각했고, 여성들의 전족은 이런 남성들에 비해 ‘더 부드럽고 소극적인’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였다. 동베이(东北) 남성들은 호방하고 시원시원하면서 허풍이나 과장이 좀 심하다거나, 상하이 남성들은 퇴근할 때 장에서 찬거리를 사와 저녁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동베이 남성들에 비해 섬세하다고 하는 것 역시 특정 지역의 표준화된 남성성을 보여준다.

마가렛 미드의 고전적 연구(1998)에서 지적하듯이 남성성 또는 여성성이라는 것은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며 어떤 특성이 특정

성별에 자연스럽게 결착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개인들 역시 한 가지 특성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라는 특성은 시대와 상황, 다양한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성별에 따라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드 프랭클린이 제시한 것과 같은 목록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에서 특정 성별에 특정 성향을 연결시키고 그 연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해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소위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이 그것이다. 2021년 12월 저장성(浙江省)에 거주하는 26세의 저우펑(周鹏)은 ‘여자 같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언어폭력, 따돌림, 협박 등으로 고통받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죽기 전 “남자들은 짓궂고, 싸우고, 욕을 하며 성장해야 한다. 조용히 지내는 사람은 여성적이며 여자 같은 남자(娘炮, 냥파오)로 불린다”라는 비탄의 글을 웨이보에 남겼다(BBC 中文网 2021/12/15).

“단일하고 생래적인 것으로서의 ‘남성성’이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신화이며 그것은 복수의 ‘남성성들’ 사이에서 한 사회의 특정한 권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패권화를 통해 작동”(박이은실 2013, 153)한다. 즉 특정 성향을 어느 성별의 대표적 특성으로 본질화하고 여기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려 하는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태도들이 존재한다.¹⁾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사회의 ‘남성성’을 현 중국사회의 맥락 속에서 검토해 보려 한다. 다양한 남성성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주의와 애국주의라는 맥락에서는 ‘남자다운 남자’를 강조하고 다른 남성성들은 배제하려 하는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중국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고자 한다.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독해, 인터넷을 통해 표현되는 여러 태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점점 강해지는 중국의 국가주의, 중국인들의 애국주의적 행동들이나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현대 중국사회의 다양한 남성성 중 강한 국가주의와 연결되는 남성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코넬은 다양한 남성성 중 특정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간주되는 것을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이라 부른다(코넬 2013, 15).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분석하고 있는 자료는 인터넷과 이미 발표된 문헌들을 통해 수집하였다. 웨이보(微博), 바이두 테바(百度贴吧), 비리비리(哔哩哔哩), 즈후(知乎) 등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몇 곳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 분석하고 선행연구들에 대한 세심한 독해를 통해 논문을 구성하였다. 중국에 있는 지인들과 비정기적으로 위챗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이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비공식 면담도 수행하였다.

II. 중국의 남성성들: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변화에 대한 짧은 요약

몇 가지 추상적 개념으로 특정 성별의 특징을 설명하려는 과도한 일반화와 단순화의 문제가 있음에도 고대 중국 사회에서는 양(陽)과 음(陰)의 이분법적 범주에 남성과 여성을 위치시키고 다시 문(文)/무(武)의 이분법으로 남성성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Stevenson 2016). 문/무 이분법은 실제로 남성적 특성을 드러낸다기보다 그것을 설명의 체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분류방식이기는 하지만 그저 남성과 여성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비해 남성적 특징을 좀 더 세분화하려는 시도로 중국에서 꽤 오랫동안 활용되었다. 어떤 시대에는 문을 무보다, 다른 시대에는 그 반대를 이상적 남성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보면서 문/무의 이분법을 활용하였는데 양자는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감정표현을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과감함, 대담함 등을 강조하는 무를 높이 사면서도 절제, 통제, 부드러움 등을 중시하는 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여겨 온 것도 사실이다(Li & Jakowiak 2016, 187-188).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중국이 19세기 말 그렇게 강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서구와 조우하면서부터 중국은 서구에 유린당하는 약한 남성의 이미지, 즉 ‘동아시아의 병자(东亚病夫)’라는 이미지로 인식되고 재현되기 시작하였다. 양과 음, 문과 무의 이분법 모두 대립항과의 대조와 대비를

중요한 특징으로 삼았던 것처럼 서구와 중국의 대비는 서구 남성과 중국 남성의 대비로 이어져 강함에 대조되는 약함의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그런 점에서 외세에 대항하여 강한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1919년의 5·4운동은, 두아라의 표현처럼 “취약한 국가와 강력한 국가주의 담론”(2004, 243)에서 나온, 약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필연적인 노력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이상적인 남성성 담론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근면하고 성실한 모범 노동자, 또는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자기희생과 열정을 가진 존재가 곧 이상적인 남성이라 생각되었고, 문화혁명을 거치면서는 노동자 또는 농민 집안 출신이 결혼하기 좋은 상대로 여겨졌다.²⁾

1980년대의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중국이 개인의 현재와 미래는 각자가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자기희생과 헌신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라는 남성성의 모델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경제적 실익에 민감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남성이 이상적인 남성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삶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또한 그동안 억눌려 왔던 여성들의 삶과 섹슈얼리티의 해방에 대한 관심과 요청이 증폭되면서 남성의 경제적 권력 감소와 지위 축소에 대한 위기감도 생겨났다. 여성이 ‘득세’하고 남성들은 위기에 봉착했다는 의미에서 ‘음이 성하고 양이 쇠약해졌다(陰盛陽衰)’는 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는 서구나 일본 남성과의 비교를 통한 중국 남성성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

2) 남성성의 변화와 함께 이상적인 여성성 역시 중국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고대 중국의 강한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은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거의 완전하게 종속된 존재였다. 아들은 과거급제를 통해 입신양명할 수 있도록 키우지만 딸은 좋은 가문으로 시집 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을 거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 키우던 사회였다. 그러다가 1900년대에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남성을 도와 열강에 대항해야 한다는 담론이 생성되었고 1949년 이후에는 낙후한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 역시 노동자로 소환되었다. 하늘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다거나(半边天) ‘철의 아가씨(铁姑娘)’ 같은 표현들을 통해 여성들 역시 노동에 참여할 것을 역설하였으나 이는 여성의 특성 자체를 고려한 결과라기보다는 여성을 남성의 기준에 맞추고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여성의 특수한 문제들은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반혁명적인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여성성을 남성성에 종속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다(김미란 2009; 김미란 2021; 스도 2009; Wang 2001; Yang & Yan 2017 등 불 것).

고 중국이라는 국가의 남성적 활력 역시 쇠퇴하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에까지 연결되었다(Song & Hird 2014, 9).

개혁개방의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전 지구적 교류와 연결이 점점 증대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에는 남성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남성성 역시 다양한 특징들이 혼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는 계층과 계급, 도시와 농촌, 결혼과 아이 양육, 젠더 관념 등 여러 요소들이 관련된다. 예를 들어 고학력 이면서 높은 소질(素質)과 품위(品味)를 갖춘 도시의 중산층 화이트칼라 남성이 개혁개방 시기에 잘 맞는 남성으로(Hird 2016; Song & Hird 2014, 55-78), 이들은 자기 관리의 기술을 체득한 신자유주의 주체의 좋은 사례이며 현대 중국의 이상적 남성성 중 하나를 드러내는 존재로 인식된다(Song & Hird 2014, 152). 또한 아이가 안정적이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아빠로서는 과거의 엄격하고 훈육을 담당하던 모습 대신 다정다감하고 육아와 집안일에 관심을 가져야 이상적으로 생각된다(Li & Jakowiak 2016). 한국의 대중문화가 유행하면서 소위 꽃미남 아이들에 대한 열광 역시 남성성의 변화와 다양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이전의 마초 같은 남성과 대비되는 부드럽고 다정한 남성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자이난(宅男)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일본의 오타쿠라는 말이 가진 부정적 함의와 달리 이들은 부드럽고 쉽게 부끄러워하는 등 이성애적 낭만 담론에서 여성에게 잘 맞는 남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Song & Hird 2014, 79-119). 한편 도시에서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는 농촌출신 남성들의 경우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통제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 인해 여성과의 결혼도 쉽지 않기 때문에 남성성이 위축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Choi 2018).

고대 중국에서 양/음 또는 문/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남성성을 분석하던 것, 가부장제 질서 안에서 효(孝), 충(忠), 신의(信義) 등의 실천을 남성성의 중요 요소로 보던 것, 사회주의 시절 자기희생적 혁명영웅의 이미지가 이상적인 남성성으로 여겨지던 것과 달리 지금은 매우 다양한 남성성들이 혼재되어 있다. 만약 여기에 좋은 배경을 가진 성공적인 남성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부르는 ‘루저(屌丝)’ 담론까지 포함시킨다면 현

대 중국의 남성성이라는 지평은 더욱 복잡한 그림이 될 것이다. 이 지평을 완벽하게 그려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목록화하기보다는 일부 남성성들을 맥락화시키고 특정 상황이나 사건과 관련된 남성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의 하나로 우리는 국가주의와 애국주의라는 현상에 집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 중국의 국가주의 혹은 애국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상황들에서 어떤 특성의 남성성이 강조되어 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중국의 국가주의, 애국주의와 남성성: 몇 가지 사례들

1. ‘공격자-남성’: 강간이라는 용어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한때 중국의 젊은이들이 열광했던 작가 한한(韩寒)은 2008년 “애국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답(回答爱国者的问题)”이라는 글에서 애국주의 청년들을 비판한 바 있다. 애국주의 청년들이 한한에게 제기한 11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그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과 답은 아래와 같다.³⁾

질문2: 너의 엄마가 외국인에게 강간을 당한다면, 너는 항의하지 않을 것인가?

한한: 외국인은 나의 엄마를 강간하지 않았다.

질문3: 조국은 당신의 어머니...

한한: 조국은 조국이고 어머니는 어머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국을 공격하는 외국 세력은 중국이라는 어머니를 강간하려 하는 남성적 존재로 상정된다는 점이고

3) 韩寒 (2008), “回答爱国者的问题”, <https://net.blogchina.com/blog/article/520018>. (2021년 11월 3일 검색)

또 다른 하나는 하필이면 ‘강간’이라는 폭력행위가 비유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2008년은 티베트 독립운동 49주년을 맞아 티베트에서 일어난 반정부시위가 유혈사태로 끝난 후 베이징 올림픽의 성화가 전 세계를 일주하여 중국으로 들어와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의 불을 밝힌 해이다. 프랑스와 한국 등에서 성화봉송을 응원하는 중국인들과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 사이에 폭력을 동반한 충돌이 일어났고 이후 중국 내에서 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에 대한 불매 운동과 매장 앞 시위 등이 이어졌다. 티베트 관련 보도로 인해 반미시위와 함께 anti-CNN 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때이다. 이후 2010년에는 다오위다오(또는 센카쿠열도)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단속하면서 빚어진 충돌로 베이징 일본대사관 앞에서 격렬한 반일시위가 있었고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루어졌다.

이런 활동들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공격의 대상을 여성으로 상징하고 그에 대한 성폭력, 즉 강간을 매우 쉽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본, 한한과 관련된 사례뿐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강간과 성폭력의 비유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2009년 중국 수영복 디자인 대회에서 오성홍기를 디자인에 활용한 비키니 수영복이 등장했을 때 신성한 국기를 더럽혔다는 비난과 함께 인터넷에서는 “모델들은 끌어내서 칼로 다져버려야 한다”, “여자모델은 강간을 해야 한다”, “디자이너는 틀림없이 일본인일 것임으로 죽여야 한다” 등의 혐오 표현이 난무했다(김인희 2021, 94-95). 2001년 여배우 자오웨이(趙薇)가 일본 육일기 도안의 옷을 입었을 때에도 “왜놈의 기생”이라거나 “자오웨이를 강간하고 조상의 무덤을 파야한다”는 표현으로 비난을 했고 그녀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과 합성하여 전파하기도 하였다(김인희 2021, 123).

유사한 사례들은 하나하나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특히 애국주의 진영에서 일본은 중일전쟁 당시 ‘어머니 중국’을 능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복수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일본과 중국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쫄잔한 일본(小日本)” 혹은 “일본귀신(日本鬼子)”이라는 멸칭을 사용하며 “언젠가 일본에 가서 같은 방식으로 복수해야 한다”거나, “일본 여성을 강간하는 성인영화를 찍겠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과 여성을 공격한다.⁴⁾ 국가대표 축구경기에서 일본이 경기에 나서면 그 상대가

중국이 아닐지라도 “일본은 돌아가서 성인영화나 찍어라!” 등의 말로 일본의 패배를 원하며 일본이 지면 “일본이 통쾌하게 강간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⁵⁾ 일본여성을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는 성인영화에 대해서도 “중국이 쿵푸로 일본의 공수도와 싸워 이기는 듯한 흥분을 느낀다”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⁶⁾ 이와 같은 반응들은 공격자=남성, 공격대상=여성으로 상징하는 여성 차별적 태도를 애국주의로 포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폭력은 모욕의 한 형식이며(김현경 2015, 140) 범죄이다. 자오웨이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은 합성사진 제작과 유포 역시 범죄행위이다. 브라운밀러는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강간은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욕정에 의한 범죄가 결코 아니다. 정복자가 되고 싶은 남성이 여성에게 두려움을 주고 협박하려는 의도로 계획한 비하 및 점령 행위, 즉 의도적으로 여성을 적대하는 폭력 행위이다”(2018, 612). 여기에서 남성성은 특정 상대를 여성화하여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재현된다. 김엘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남성성은 여성성을 대등하게 이원화하지 않고 배타하고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남성성은 여성성과 불평등한 권력관계 안에서 배열되며 구성되는 것이다. 또한 남성성은 남성성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나 행동양식을 여성화시키면서 무엇이 규범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게이 남성들을 여성화한다든지 상대적국을 여성화하는 경우가 그렇다. 여성화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활동에 이른바 여성적인 특징을 갖다 붙여서 상대의 지위를 낮추고, 비하하거나 취약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김엘리 2017, 187-188).

일각에서는 상대에 대한 강간 등의 표현을 남발하는 것은 애국주의로 치장한 극단적인 소수들이라며 이들을 ‘귀남(国男)’이라는 용어로 경멸하기도 한다. 이런 태도들이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진정한 애국주의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우익뿐 아니라 평범한 남성들에게도 여성이 약자라는 의식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남성이 성희롱, 성폭력 피해의 고통이나 피강간의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

4) 百度贴吧, <https://tieba.baidu.com/p/1436176823>. (2021년 11월 15일 검색)

5) 新浪博客, http://blog.sina.com.cn/s/blog_43fdbf45010003vm.html. (2021년 11월 15일 검색)

6) 阝客, <http://jionger.com/show/3965/&page=1>. (2021년 11월 3일 검색)

이 있다”(천정환 2016, 358)는, 한국사회에서의 비판이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2. 강인한 ‘구원자-남성’: 영화 <전랑(战狼) 2>(2017)와 <장진호(长津湖)>(2021)의 사례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때 『인민일보』(2016/05/16)의 한 기사는, 중국은 이미 국제적으로 평화 유지를 위해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세계 2위의 대국인데 <태양의 후예>처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영상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안타까워하였다.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한 바로 다음해 중국은 <전랑2>를 내놓았고 뒤에서 언급할 <장진호>가 중국영화사에서 가장 높은 흥행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는 2021년 전까지 <전랑2>는 중국 내에서 56.94억 위안의 수입을 기록한, 최고 흥행 수익을 얻은 영화였다.⁷⁾

영화의 내용은 단순하다.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내전이 발발했는데 그곳에 고립된 중국교민들과 아프리카 난민들을 특수부대 요원이었던 남성이 구출하는 이야기이다. <전랑2>가 영화적으로 보여주는 강한 중국의 이미지, 영화를 통해 제시하는 국가주의의 특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다른 연구들이 언급한 바 있다(강내영 2018; Hu & Guan 2021; 周慧敏 2017 등). 여기에서는 영화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남성성의 특성만 짧게 소개할 것이다.

영화는 시종일관 전형적인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전시한다. 강인하고 근육질인 주인공 령핑(冷锋)의 몸과 힘을 보여주는 것은 기본이다. 그는 힘만센 것이 아니라 지략도 쓸 줄 아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다. 령핑이 미국계 중국인 의사 레이첼과 아프리카 어린이 파샤를 데리고 도주할 때 중국 해군에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레이첼을 ‘간호사’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말을 듣고 레이첼이 자신은 의사라고 정정해준다)은, 정형화된 성별분업에 기초한 차별적 의식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도착한 공장에서 사장 쥐이판

7) 中国票房, “中国历史票房红榜”, <http://www.boxofficecn.com/the-red-box-office>. (2022년 4월 3일 검색)

(卓非凡)은 레이첼과 파샤에게 칼을 보여주며 “이런 것이 남자들의 무기”라고 자랑한 후 “당신들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영화적으로는 쥐이판의 허세를 드러내는 장면이지만 동시에 ‘보호자 남성’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령핑이 공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쥐이판은 “우리는 함께 싸운 전우”라는 말로 전우애를 통한 남성만의 연대, 소위 ‘哥们儿关系’를 강조하기도 한다. 마지막 전투 장면이 시작되기 전 령핑은 레이첼에게 헬기를 타고 떠나라고 하는데 레이첼이 남아 있겠다고 하자 령핑은 그녀를 번쩍 안아 헬기에 태운다.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성이 옳다고 생각한 방식으로 여성을 다루는 것이다.⁸⁾

한편 ‘항미원조 71주년’을 기념하여 중화권의 유명 영화감독들 여럿이 참여하여 만든, <장진호>는 2021년 개봉하자마자 중국 역대 영화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다. 속편인 <장진호의 수문교(长津湖之水门桥)>(2022) 역시 역대 영화 중 7위의 흥행성적을 기록했다.⁹⁾ 한국전쟁 당시 함경남도 장진군 일대에서 유엔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벌인 전투를 영화화한 것으로 긴 전투와 추위 때문에 양쪽 모두 큰 피해를 입었지만 영화는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덕분에) 중국군대가 (유엔군이 아니라) 미군에 대해 승리를 거둔 것으로 묘사한다. 극중 마오쩌둥은 핑더화이에게 “지금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후 수십 년, 또는 100년의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서양은 우리를 얕잡아 본다. 존엄은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8) 이외에도 영화에서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드러난다. 예를 들어 빈곤, 낙후, 자연의 이미지로 아프리카를 타자화하는 시선이 있다. 중국인들만 탈출하자는 의견을 령핑이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탈출하기로 결정한 후 공장에서 일하던 아프리카인들이 불을 피우고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에서 령핑과 함께 전투에 참여한 퇴역군인 허젠궈(何建国)는 령핑에게 “이 흑형들(这黑哥们儿)은 모닥불 앞에 모이면 전쟁, 질병, 가난 따윈 다 잊는 재주가 있지”라고 말을 한다. 한국에서 ‘흑형’이라는 표현이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피부색으로 사람을 정체화하고 구분하는 차별적 태도를 보이며 이들을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존재로 묘사한다.

9) 영화의 흥행과 관련하여서도 젠더 차별적 태도들이 등장한다. <장진호>, <장진호의 수문교>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나 글들에는 “이 두 영화에 여성관객이 많으며 이는 두 영화에 모두 출연한 이양첸시(易洋千玺)의 여성팬이 많기 때문”이라는 댓글들이 많다. “최근 영화표값이 비싼 상황에서 남성들은 절약하지만 여성들은 (잘생긴 남자 배우를 보기 위해) 돈을 마구 쓰는 경향이 있다”는 발언들은, 과거 한국 문화산업에서 여성 팬덤에 대해 ‘얼빠’라 치부하던 태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군이 압록강을 넘어오면 우리가 약한 존재로 취급 받을 것”이라고 하며 전쟁을 정당화한다.¹⁰⁾ 영화가 끝날 때에는 실제 장진호 전투에서 사망한 양건쓰(楊根思)의 말을 자막으로 보여주며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혁명전사에게는 완성하지 못할 임무도 없고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도 없으며 이기지 못할 적도 없다!(在革命战士面前, 不相信有完不成的任务, 不相信有克服不了的困难, 不相信有战胜不了的敌人!)”

잃어버린 미국의 남성성 복원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며 냉전시대에 강한 국가의 상징으로 활용된 할리우드 영화 <람보(First Blood)>(1982)처럼(박진임 2002, 96), 많은 사회에서 영화를 통해 강한 남성이 국가를 대표하는 서사를 그려왔다는 점에서 <전랑2>가 보여주려는 남성성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분명 아니다. 중국 내에서도 <삼국지>나 많은 무협 작품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항일전쟁을 다루는 많은 주선울 영화나 드라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다. 또한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받아들이는 용감한 군인의 이야기 역시 레이펑(雷鋒)의 사례처럼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현대 중국에서는 희생이나 헌신보다는 노력, 세련됨 등이 보다 각광받는 남성성이며 진지함과 장엄함보다는 재미와 유희가 가미된 애국주의 활동들이 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현대사회, 특히 능력주의가 중시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타인 혹은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꺼이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희생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장진호>의 영화적 재현, <전랑2>가 묘사하는 강한 남성 이미지의 재현은 과연 어떤 의도에서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랑2>, <장진호> 그리고 이 외에도 외지에서 특수작전을 펼치는 중국 군대를 묘사한 <오퍼레이션 메콩(湄公河行动)>(2016), <홍해행동(红海行动)>(2018), <1953 금성대전투(金刚川)>(2020) 등의 영화들이 연이어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들이 과거의 주선울 영화와 다른 점은 ‘강한 중국’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병자’라는 비유에서 벗어나 강한

10) 그토록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인지, 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등 ‘항미원조’ 전쟁과 관련한 여러 난처함들이 있었는데 최근 중국은 많은 ‘항미원조’ 관련 콘텐츠들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넘어서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담론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한담 2021).

국가의 강한 남성으로서의 이미지가 이 영화들이 재현하는 남성성이다. 이 영화들은 남성 중심의 영웅주의와 강한 국가주의를 이입하려 애쓴다. 강한 국가주의를 이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미국과 서구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평화를 옹호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규범을 잘 따르는 중국의 부상을 강한 남성의 모습으로 그려낸다. 남자=힘, 여자=연약함이라는 이분법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신성시하고 여성을 배척하는 데 공헌해왔다(와카쿠와 2015, 99)는 점에서 이 영화들은 강한 국가를 위해서는 강한 남성이 필요하며 이것이 진짜 남성이라고 역설한다. <전랑2>의 감독이자 시나리오작가이며 주연을 맡은 우징(吳京)은 이 영화에 대해 “남성들에게는 ‘진짜 남자(真男人, 硬汉)’가 되도록, 여성들에게는 ‘진짜 남자’를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¹¹⁾

한편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경계하는 시선에 대해 자신들은 서구나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과거 서구의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강한 남성성을 현대 중국 남성의 모델로 삼는 것은 이 영화들이 서 있는 모순적인 위치를 보여준다. “유럽과 미국 문화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정의하는데 군사적 폭력보다 중요한 무대는 없다. ... 영웅은 서구 문화의 이미지에서 남성적인 것의 핵심”(코넬 2013, 312)이라는 분석을 생각해 볼 때, 서구와 미국을 극복하기 위해 서구와 미국을 따라하는 것이 이 영화들이 가진 아이러니이다. 또한 전쟁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피해와 파괴, 무고한 희생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전 지구적으로 중요성을 얻고 있는 지금, 중국이 연이어 묘사하는,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강한 영웅 남성의 이미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중국의 태도를 스펙터클로 가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3. ‘보호자-남성’: 코로나19 방역전쟁의 사례

“평시보다 전시는 애국심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박성우

11) Liu, Petrus (2018), “Women and Children First: Jingoism, Ambivalence, and Crisis of Masculinity in Wolf Warrior 2”, <https://u.osu.edu/mclc/online-series/liu-rofel/#A>. (2021년 12월 26일 검색)

2012, 25).

위의 인용문이 아니어도 전쟁은 그 급박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애국심을 요구하고 사람들은 그에 호응하여 평상시라면 불가능했던 일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코로나19의 방역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 미국, 그리고 WHO를 포함한 많은 곳에서 전쟁으로 비유된다. 2019년 12월 30일 한커우(汉口)의 화난수산물도매시장(华南海鲜批发市场)에서 원인불명의 폐질환이 보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명명된 후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부와 공산당 관료, 언론 등에서 코로나 방역을 ‘인민전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전쟁의 수사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였다. 시 주석은 “용감하게 투쟁하며, 더 강한 자신감, 더 강한 의지, 더 과감한 조치로, 인민 군중에 의지하여, 전염병 확산추세를 단호히 억제하고, 전염병 방역의 인민전쟁 총력전, 저지전(阻击战)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²⁾ 중국의 미디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저항, 투쟁, 승리, 전선, 저지전, 전투, 분투, 전략, 지휘부, 싸워 이긴다’ 등의 전쟁 관련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었다(이선희 2021, 162). 우한(武汉)부터 베이징(北京), 시안(西安), 상하이(上海) 등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이동금지, 통행금지, 봉쇄 등 거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로 정당화되었다.

여러 미디어들에서 방역을 위한 분투는 ‘역병과의 전쟁(战疫)’으로, 의료진은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으로 묘사된다. 한 예로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 만든 다큐멘터리 <武汉战疫纪(The Lockdown: One Month in Wuhan)>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한 의사가 “전장(战场)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 자신은 (코로나에 감염되어) 도망병(逃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완치하고 돌아왔으니)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남긴다. 1월 24일 군 의료진이 투입되기 전까지¹³⁾ 우한 의료진의 분투를 그린 극영화

12)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시진핑, 전염병 방역 인민전쟁 총력전·저지전에서 꼭 승리할 것”, <https://www.fmprc.gov.cn/ce/cekor/kor/xwxx/t1743145.htm>. (2021년 12월 13일 검색)

13)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후 2020년 1월 23일 우한이 봉쇄되었고 그 다음날

<战疫>(2020)의 마지막 장면에는 다음과 같은 실제 의료진의 내레이션이 삽입되었다: “전국의 인민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战胜这次疫情)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과 같이 코로나19라는 인간과 전염병의 문제는 국가 단위의 문제가 되었고 전염병 통제는 의학과 의료진의 일이면서 국가와 정부의 관리 능력의 문제가 되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다(박우 2020 참고). 코로나 방역이 전쟁으로 비유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남성이 전면에 부각되고 여성은, 마치 전쟁 중 후방에서 돌봄과 지원의 역할로만 제한되는 것처럼(와카쿠와 2015, 109) 가려졌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간호사의 90%, 의사의 약 절반 정도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비유되는 방역 전선의 재현 과정에서는 주로 남성들이 부각되고 여성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일러스트 중 하나는 오른쪽에 방호복, 왼쪽에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을 묘사하고 있다.¹⁴⁾ 이처럼 의료진을 격려하는 정부 당국이나 민간의 포스터에는 주로 남성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방역 초반 여성에 대한 지원이 취약했고 특히 생리대와 같은 필수품은 거의 지원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쉬주주 2021, 307)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일부 미디어와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보다는 “남성 의료진들도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특수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여성들을 지원하자는 의견은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물으며 본질을 흐리고 여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를 특수한 혜택에 대한 요구로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¹⁵⁾

군의료진이 우한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군의료진이 파견되었다는 사실 역시 코로나 상황을 ‘군이 개입해야 하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시키는 데 일조하였을 것이다.
14) 이 일러스트가 포함된 기사는 “중국은 방역에 사용한 비용을 공개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중국이 방역전쟁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는지 강조한다[百度, <http://baijiahao.baidu.com/s?id=1662507753068822213>. (2021년 12월 7일 검색)]

15) Zakaria, Shamim and Yan Ni. (2020), “Remember the Women Fighting Coronavirus: Female Medics are Leading the Frontline Battle in China, but a Lack of Attention to Women’s Sanitary Needs Irks Advocates”, <https://thediplomat.com/2020/02/member-the-women-fighting-coronavirus/>. (2021년 12월 5일 검색)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여성은 그들의 노력보다는 외모가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희생을 강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각되었다. 2020년 2월과 3월 중국 각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을 때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여성 간호사들이 삭발을 감행하는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었다. 간호사들의 삭발은 방역복을 입을 때 긴머리는 거추장스럽기 때문이라거나, 일이 많은데 머리에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평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희생과 헌신, 각오와 용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이 생과 사의 시련을 곧 마주할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전장(戰場)에 들어가기 위해 삭발을 한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거나 칭찬할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삭발한) 헤어스타일은 ‘전염병과의 전쟁’ 일선에서 얻은 특별한 훈장”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소개될 때 일부에서는 “젊고 예쁜 간호사(小美护)” 혹은 “여자 간호사(女护士)”라는 용어로 외모, 나이, 성별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한 중요한 논쟁들을 촉발시켰다. 일부에서는 왜 남자 의사나 간호사는 삭발하지 않고 여자 간호사만 삭발하는지 물으면서 여성을 정부 방역의 선전도구로 삼는 것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또 일부 간호사들이 삭발을 주저하는 모습을 두고 삭발 결정은 개인의 자유를 빼는 집체의 압박이라고도 하였다. 삭발을 하는 여성이 희생과 헌신, 용기를 보여준다는 기사나 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삭발을 하지 않는 여성은 희생과 헌신, 용기가 없다는 것인지 되물기도 하였다. 여성의 몸을 둘러싼 해석과 충돌,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귀정 2020, 226-227; 쉬주주 2021, 315) 애국주의와 국가주의에 여성이 동원되는 과장된 ‘희생’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김미란 2021, 281)도 제기되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전쟁의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급한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다. 위기의 상황은 언제나 위기에 대한 대처와 대응 이외의 것들 대부분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무엇보다 전쟁 선포는 ‘적’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개입을 전방위적으로 요청한다는 점에서 위기를 사회 전체의 문

제로 만들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미 중대한 무언가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고양감을 불어넣는다”(서보경 2020, 24).¹⁶⁾ 다만 이런 일이 전쟁으로 비유되는 순간부터 ‘전쟁에 적합한 인간형’으로 남성이 선택되고 남성 주도의 일처리가 우선시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쟁의 상황은 남성을 전면, 여성은 후면에 배치한 후 남성적 훈육 과정, 위계에 따른 명령 체계 등을 통해 남자다움을 규정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전선’에서 보호하는 존재는 남성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보호받는 존재로 범주화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여성이 진짜로 중요한 세계와는 관련 없는 주변적 존재이며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수동적으로 구경만 하는 존재라는 남자들의 오랜 의혹을 확신으로 만들어준다”(브라운밀러 2018, 54).

IV. 가부장제와 중국몽

1. 디지털 내셔널리즘의 가부장적 태도 소환: ‘디바출정(帝吧出征)’의 사례

2016년 1월 20일 바이두(百度) 인터넷 커뮤니티(贴吧) 중 가장 규모가 큰 디바(帝吧)가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쑤리뉴스(三立新聞), 빈과일보(蘋果日報), 자유시보(自由時報) 등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량의 글을 올리는 디지털 원정을 조직하였다.¹⁷⁾ 중국의 방화벽으로 인한 제약이 있기는 하

16) 서보경(2020)은 바이러스를 외부의 침입자이자 적이라는 타자로, 인간의 몸은 그것에 대해 방어를 하는 자아로 설정하는 전쟁의 비유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묻는다. 인간신체와 바이러스의 관계는 양자가 서로의 존재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구분을 갖는 자아-우리와 타자-적 사이의 관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섬멸해야 하는 적으로만 상정될 때 그것으로부터 가려지는 사회적 존재들이 있다는 점, 지금과는 다른 생존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17) 디바의 원래 명칭은 ‘리 커뮤니티(李毅吧)’인데 커뮤니티 내부의 몇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현재는 디바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의 ‘남초 커뮤니티’와 비슷하게 남성 유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게시글들도 자조와 조

지만, 인터넷의 자연스러운 사용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이용한 애국주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고(Schneider 2018) ‘디바출정’은 이런 ‘디지털 내셔널리즘’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VPN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디바 유저들뿐 아니라 외부의 많은 사람들도 ‘원정’에 동참하여 대만 여러 기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남겼다. 준비과정에서 디바는 공격을 조직화하여 역할을 나눴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대신 문명적 언어를 사용한다, 외설적인 사진이나 국가 지도자의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대만독립에 반대하는 것이지 대만 사람들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등의 규율도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다. 대만 여러 기관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공격’은 후진타오(胡锦涛) 전 주석이 2006년 제기한 ‘팔영팔치(八榮八耻)’의 내용 또는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행진곡(义勇军进行曲)>의 가사, 서구열강에 할양된 홍콩, 대만, 마카오 등의 지역을 의인화하여 원이뉘(闻一多)가 1925년에 발표한 <일곱 아들의 노래(七子之歌)>라는 시 중 대만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유명한 밈(소위 ‘짤’)을 붙여 넣는 것, 중국 여러 지역의 음식이나 경치를 소개하면서 대만사람들에게 중국과 대만이 통일하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글을 남기는 방식도 동원되었다.

디바출정에 사용된 글과 ‘짤’ 등의 ‘공격무기’나 ‘출정’의 과정을 여기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출정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의 과정에서 대만을 자식으로 상정하고 그들에게 훈계하는 남성 가부장의 발화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네놈은 이 중국 아버지가 욕할 필요도 없어,” “딸아, 독립은 배신이고, 네 아버지를 잊는 건 불효다! 박애의 마음도, 민족의 대의도 없구나! 네가 그런 딸내미라도 이 아버지는 너를 사랑으

룽,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자료 소개나 공유, 성경험 관련 내용 등이 많다. 루저(屌丝) 담론 역시 이곳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디바 출정은 2015년 11월 대만 출신인 쓰위(周子瑜)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청천백일만지홍기를 든 것, 2016년 1월 16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된 것 등에 대한 반응으로 기획되었다. 디바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虎嗅 (2016), “帝吧出征FB: 这李毅吧的‘爆吧’文化是如何形成的?”, <https://www.huxiu.com/article/137749.html>. (2022년 8월 6일 검색)을,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은 류하이룽(2022)에 실린 글들을 볼 것.

로 가르칠 게다!”(왕저 2022, 144) 혹은 “이렇게 다시 모이는 결(團圓) 1895년부터 지금까지 121년 동안 바래왔다. 딸아, 이제 곧 새해가 올 테니 집으로 돌아와라” 등의 글을 사용하며 많은 참여자들이 출정 과정에서 중국 본토를 아버지로, 대만은 집 나간 자식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과거 중국은 ‘어머니로서의 국가’ 즉 ‘모국(母國)’으로 표현되곤 했었다. 앞서 언급한 <일곱 아들의 노래>에서도 중국 본토는 잃어버린 아들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로 묘사되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학생 여러분, 홍콩은 아기이고 중국은 엄마예요. 아기는 엄마 품으로 돌아와야 하죠? 그래서 홍콩은 중국이라는 나라 속으로 돌아오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중국은 어머니로 재현되었다(장정아 2016, 201).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서구로부터 공격받던 약체로서의 모국 대신 ‘조국(祖國)’으로 표현되고 어머니 대신 아버지의 상징이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특히 대만과 관련하여서는 조국통일이라는 표현이 거의 대체로 정착하였다.¹⁸⁾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매체에 실린 한 글에서는 중국 본토가 아버지로 비유되면서 어머니의 심적 고통이나 따뜻함 대신 직접적인 훈계의 뉘앙스가 사용되며 본토를 아버지로, 대만을 딸로 묘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를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디바출정에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였는데 여성들이 대만을 향해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성별로부터 단절되고 가부장제를 내면화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¹⁹⁾

디바출정에서 활용된 가부장적 표현들이 재미와 유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실제 이것이 대만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기보다 ‘내가 이런 일에

18)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중국 관영매체들의 보도들이나 이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판과 커뮤니티의 글들에는 거의 예외없이 ‘조국통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댓글들이 달렸다.

19) 嚴薔 (2016), “臉書洗版: 中國父權家庭的狂歡”, <https://theinitium.com/article/20160725-opinion-china-taiwan-facebook-fatherhood-family-yanqiang/>. (2022년 8월 1일 검색) 嚴薔은 또 다른 글에서 여성들이 가부장제를 내면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롱의 자원으로 활용한 것이지 그 가치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며 가부장제에 대한 조롱을 통해 스스로에게 권력을 부여했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嚴薔 (2016), “愛國小粉紅、粉絲戰爭, 與天朝主義賽博格”, <https://theinitium.com/article/20160722-opinion-yanqiang-pink-cyborg>. (2022년 8월 1일 검색)].

참여했다’는 자기도취, 자기표현, 자기 전시의 ‘인터넷 드라마’로 대륙 내 네티즌과 민족주의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杨国斌 2016, 28) 가부장제의 태도가 애국주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가족(家)의 확장으로서의 국가(国)라는 전통적 관념을 현대의 정치적 상황에 동원하여 가부장제와 국가를 연결시킨 것이다. 가부장제와 국가의 연결은 현대중국의 중요한 국가 슬로건인 중국몽의 확산과정에서도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2. 중국몽과 남성성: 책임과 능력을 지닌 남성 가장의 이미지

우리는 III장에서 최근 중국의 국가주의 혹은 애국주의와 관련하여 공격적이거나 용감해야 한다거나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는 식의 특정 남성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III장에서 다룬 세 가지의 사례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무엇보다 ‘강한 존재’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I 장에서 언급한, ‘여성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 청년의 사례를 하필이면 그가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저 운이 없을 뿐이었던 개인의 사건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시선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해 나타났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아래의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성성 혹은 여성성의 특성이 국가와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된다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침예한 쟁점이라는 바를 드러낸다.

2010년 크로스드레서 류주(刘著)가 후난(湖南) 위성텔레비전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콰이러난성(快乐男声)>에 참가했을 때 여성화된 남성은 중국의 전통 남성성을 훼손하고 가족과 국가에 위협이 된다는 걱정과 우려와 함께 이런 현상으로부터 ‘소년들을 구해야 한다’는 담론이 등장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5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상임위원인 쓰쩌푸(斯泽夫)는 “중국의 많은 남자 청소년들이 점점 연약하고 자존감도 약해지고 대담함도 떨어지고 있다. 남자 청소년들이 ‘여성적 특성을 갖게 되는 것

(女性气质化)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중화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BBC 中文网 2021/02/08).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강한 기질(阳刚之气)’을 키우기 위해 학교 교육에 체육 수업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심신건강을 증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²⁰⁾ 2021년 국가방송텔레비전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은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관련자 관리강화통지(国家广播电视总局办公厅关于进一步加强文艺节目及其人员管理的通知)>를 발표하면서 ‘과도한 오락화를 억제’하기 위해 출연진의 외모, 의복, 화장 등에서 정확한 미적 지도 방향을 수립하고 ‘여성스러운 남성’, 즉 냥과오와 같은 기형적인 미적 기준은 규제해야 한다고 하였다.²¹⁾ 냥과오 규제는 ‘여성화된 남성성’에 대한 ‘우려’가 공식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여성화된 남성’의 등장은 한국 대중문화, 특히 K-Pop의 인기와 함께 아이돌 팬덤이 확산되면서 소위 ‘꽃미남’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다가 2016-17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수입과 방송이 금지되고 이와 관련하여 ‘꽃미남’에 대한 팬덤 역시 ‘교정’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표면에 등장했다. 이처럼 ‘여성화된 남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국가적 쟁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여성화된 남성’에 대한 우려와 강한 남성성에 대한 강조는 서구의 남성들에 비해 동양의 남성들은 유순하고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Lee 2020 참고)에 대한 반발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강한 중국으로서 발언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는 중국몽이 그 배경에 있다. 특히 ‘여성적 남성’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교화’ 필요성의 인식이 국가적 수준과 민간 수준 양쪽에서 애국주의적 태도와 국가주의적 입장이 점차 강해지던 2000년대 이후부터 등장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몽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성성의 위기는 곧 국가적 위기”(Zheng 2015, 353)라는 인식이다. 과거 서구의 침탈로 인한 국가적 수

20) 教育部(2021), “关于防止男性青少年女性化的提案教育部答复了”,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1-01/29/c_1127043406.htm. (2021년 12월 21일 검색)

21) 国家广播电视总局(2021), “国家广播电视总局办公厅关于进一步加强文艺节目及其人员管理的通知”, http://www.nrta.gov.cn/art/2021/9/2/art_113_57756.html. (2021년 12월 20일 검색)

치는 곧 남성의 수치였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점점 강성해지는 국가의 노정에 ‘강한 남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일부의 신념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시진핑 시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근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과거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했다. 지금과 과거가 다른 지점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강한 국가 건설이 인민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현실화되고 있다는 믿음일 것이다.

“중국의 꿈이 곧 나의 꿈(中国梦就是我的梦)”이라는 중국몽 공익광고의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는 국가와 개인의 동시적 발전을 도모한다고 주장한다. 미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남성’의 모습이 일상에서 중국몽을 실천하는 남성성으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중국몽을 실현할 적임자로서의 남성 이미지는 일 잘 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시간 활용을 잘 하고 결정력 있는 화이트칼라의 중산층 사업가로서의 모습이다(Song & Hird 2014, 134). 이들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고 있으며 높은 소질(素质)을 갖추고 있고 국가가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많이 고려하거나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로서, 개인과 가족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성취는 곧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학력 수준이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은 농촌 출신 이주자 남성들이라고 해서 중국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 남성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도시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도시에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고 고향에 있는 부모들도 잘 모시는 것이 아들 된 도리라는, 부계사회 중심의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다. 불안정한 직업과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 아들, 남편, 노력하는 아빠의 역할을 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데, 이 노력이 미래에 자식들에게는 부유함과 성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비록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 자원이 많지 않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어 자식들이 도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이 그들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현실에 맞는 타협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성공은 곧 국가의 성공과 관련되어 있다는 중국 정부의 ‘중국몽’을 실현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Lin 2019).

중산층 남성들, 이주 노동자 남성들 모두 ‘밖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것은 남성의 역할이고 여성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전통적 성별분업의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돈을 벌어야 하며 가족이 먹고 살 돈이 없다면 남자가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가족부양책임자(breadwinner)로서의 남성 가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높은 소질과 학력수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 수준의 중산층 남성, 지금은 비록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 남성, 그리고 앞장에서 봤던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강한 남성들은 모두 능력과 책임이라는 전통적 가부장제의 관념(Wong 2016)을 실천하는 존재들이다. 능력과 책임이 있어야 남성으로서의 ‘영예(榮譽)’를 얻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承認) 받을 수 있다. 가족을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부장 남성에게 필요한 일인 것처럼 국가가 외부로부터 치욕을 얻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국민의 능력과 책임이라고 믿는 현대중국의 애국주의자 남성들은 중국몽의 기대를 품고 가부장적 남성성의 재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남성성의 위기’²²⁾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성화된 남성성(effeminate masculinity)은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몽이라는 국가의 이념적 도구가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동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국가의 실질적 통치과정이나 경제적 자원, 설득을 통한 동참 요청 등을 통해야 그것이 현실화될텐데 부유하고 강한 중국의 이미지가 강한 남성,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남성 이미지를 호출하고 사람들, 특히 한때 ‘陰盛陽衰’ 또는 ‘동아시아의 병자’와 같은 담론들 속에서 수치스러운 당사자였던 남성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국가 차원의 중국몽과 개인 남성 차원의 책임과 능력 있는 강한 남성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조율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22) 남성성에 대해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이미 ‘남성에게는 특정한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이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스스로도 남성 가부장의 역할을 자임하려 한다. 고대 중국 사회에서 가족과 종족집단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족과 종족은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은 가족과 종족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가족과 종족집단을 국가가 대치하려 했다. 인민공사와 단웨이(單位)는 그와 같은 대치의 실행방식이었다. 개혁개방으로 국가는 한 발 물러나면서 사회적 삶의 토대를 가족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가정생산승포제는 이를 실천하는 방식이자 후방으로 물러난 국가에 대한 은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통치와 통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혼인과 이혼의 허가제도를 한동안 유지한 것, 계획생육 정책을 강하게 실행한 것은 가족을 생명관리정치의 대상으로 보는 국가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흥과 강성함에 힘입어 국가는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국가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은 동일한 궤적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 선언의 표제로 선택된 것이 중국몽이다. 인민공사, 단웨이, 가족 등의 대리자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개인을 관리하는 것, 국가가 개인과 직접 소통하기도 하면서 국가는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전통을 그대로 떠맡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전통이 국가-국민의 관계에 정확하게 인용되면서 국가는 남성 가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사실상 중국에서 가부장제가 완전히 후퇴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최근의 상황은 그것이 방식을 바꿔 부각되는 것이고 여기에 가부장제의 남성성이 호응하고 있다. 가부장제 재건에 대한 열망이 애국주의, 국가주의와 결합되어 현대 중국의 여러 남성성 중 한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결국 추상적 중국몽의 현실적 실현을 열망하는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 강한 중국을 자리매김하려는 것이면서 동시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성격도 재정립하려 하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에서 재현되는 남성성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출현한다.

V. 나가는 글

지금까지 중국의 국가주의 혹은 애국주의라는 맥락에서 강조되는 ‘강한 남성’이라는 남성성과, 중국의 꿈과 개인의 꿈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재건되는 가부장적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의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에서 지향하는 남성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이 현대 중국에서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젠더 이분법에 기초하여 성별분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성차를 우열의 관계로 보는 차별적 시각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있다. 또한 국가 이념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남성 가부장 중심의 가부장제라는 전통적 관념이 국가적 열망과 개인의 욕망이 만나는 접점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였다.

중국의 국가주의와 애국주의 활동에 연계되는 남성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애국주의에 남성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디바출정에 많은 여성들도 참여했고 일종의 아이돌 팬덤처럼 국가를 아이돌화한 여성들의 애국주의 움직임도 있다.²³⁾ 또한 기존의 젠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권력에 기반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도 있었고, 당국에 의한 제재와 체포 등을 겪기도 했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불평등을 고발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편차 2020 참고). 여성 코미디언 양리(杨笠)는 2020년 <토크쇼대회: 시즌 3(脱口秀大会第三季)>에서 남성들을 희화화하는 내용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애국주의와 국가주의 활동에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강한 국가를 표방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남성이 전면에 배치되고 강한 남성성이 추앙받는 것은 어쩌면 구조와 제도로 인해 이미 공

23) 대표적으로는 2019년 8월 홍콩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촉발된, 아이돌 팬덤 여성들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홍콩의 소위 ‘극렬분자’들에 대한 비판을 온라인에서 전개한 “팬덤 여성들의 출정(饭圈女孩出征)”이 있다. 이들은 #我们都有一个爱豆名字叫阿中# 또는 #饭圈女孩为阿中哥哥打CALL#, #守护全世界最好的阿中#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여기에서 ‘阿中’은 중국을 의미한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웨이보 등에 글을 올리며 홍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출정의 등장에 대해서는 新浪网 (2019), “饭圈女孩出征开撕香港暴徒: 守护最好的阿中”, <https://news.sina.cn/gn/2019-08-16/detail-ihytctm9494693.d.html>. (2022년 7월 5일 검색), 관련 내용의 전파 양상에 대해서는 崔凯(2020) 참고.

고해진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적 시민권은 남성들의 그것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중국의 성격 차지수는 2015년 92위/146개국, 2016년 100위/145개국, 2017년 101위/145개국으로 3년 연속 하락하였으며(이경아 2020, 172) 2021년에는 156개 나라 중 107위로 그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²⁴⁾

중국청년들의 애국주의는 중국과 외국의 관계에 주목하고, 중국을 공격하는 모든 시도에 대한 반격에 치중하며 중국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선을 덜 주는 경향이 있다. 젠더 문제도 이 중 하나이다. 청년들의 애국주의 성향이 더 강해지고 이를 부추기는 국가주의가 더욱 강해질 경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성성이 전면에 부각될 경우 젠더정치 등을 포함한 중국 내부의 일들은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여성들의 역할 역시 주목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남성성과 젠더정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강한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에 대한 중국 내부의 성찰이 필요하다. <전랑2> 같은 영화들이 중국 내에서는 흥행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외부의 시선은 냉랭하다. 중국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부정적인 평가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스스로를 중화 혹은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自尊自大로, 남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피할 길 없다”라고 1901년 량치차오가 했던 말(오노테라 2020, 42)을 120여 년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4) World Economic Forum (2021),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https://www.weforum.org/reports/global-gender-gap-report-2021/in-full> (2021년 12월 27일 검색)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강내영 (2018). “중국 애국주의 영화 열풍 현상 연구: 특수부대 전량2(2017), 홍해행동(2018)을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 제41호, pp. 319-351.
- 귀정 (2020). 『우리는 밤마다 수다를 떨었고,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어느 페미니스트의 우한 생존기』. 우디 역. 원더박스.
- 김미란 (2009). 『현대 중국여성의 삶을 찾아서: 국가, 젠더, 문화』. 소명출판.
- _____ (2021). “현대 중국 여성해방 100년의 변천, 그 독법.” 『외국학연구』. 제56호, pp. 257-286.
- 김엘리 (2017). “카키, 카무플라주, 하이브리드 남성성: 포스트근대의 군사적 남성성.”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편. 『그런 남자는 없다: 혐오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기』. 오월의봄, pp. 172-191.
- 김인희 (2021). 『중국 애국주의 흥위병, 분노청년』. 푸른역사.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
- 두아라 프라센지트 (2004).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근대중국의 새로운 해석』. 문명기·손승희 역. 삼인.
- 류하이롱 편저 (2022). 『아이돌이 된 국가: 중국의 인터넷 문화와 팬덤 민족주의』. 김태연 외 역. 갈무리.
- 미드 마가렛 (1998). 『세 부족사회에서의 성과 기질』. 조혜정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성우 (2012). “아테네 애국심의 두 모델.” 관준혁·조홍식 편. 『아직도 민족주의인가: 우리시대 애국심의 지성사』. 한길사, pp. 11-59.
- 박우 (2020). “코로나19 4개월과 중국사회: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파동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역병.” 『다양성+Asia』. 제3권. 제2호, pp. 1-8.
- 박이은실 (2013). “패권적 남성성의 역사.” 『문화과학』. 제76호, pp. 151-184.
- 박진임 (2002). “베트남에서 잃어버린 미국의 남성성과 자존심을 찾아서: <랍보>.” 『문학과 영상』. 가을·겨울호, pp. 93-111.
- 브라운밀리 수전 (2018).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오월의봄.
- 서보경 (2020). “서둘러 떠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돌봄의 생명정치.” 『문학과 사회』. 제33권. 제3호, pp. 23-41.

- 쉬주주 (2021). “젠더 관점에서 본 공중보건 위기상황과 제도 최적화.” 백영서 편. 『팬데믹 이후 중국의 길을 묻다: 대안적 문명과 거버넌스』. 책과함께, pp. 304-325.
- 스도 미즈요 (2009). “근대중국의 ‘여권’ 개념: 1900년대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야카와 노리요 외.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여성표상을 중심으로』. 이은주 역. 소명출판, pp. 255-275.
- 오노테라 시로 (2020). 『중국 내셔널리즘: 민족과 애국의 근현대사』. 김하림 역. 산지니.
- 와카쿠와 미도리 (2015). 『남자들은 왜 싸우려 드는가』. 김원식 역. 알마.
- 왕저 (2022). “오늘 밤 우리는 모두 디바 멤버들이다: 온라인상에서의 감성적이고 유희적인 행동으로서의 사이버 민족주의.” 류하이룽 편저. 『아이들이 된 국가: 중국의 인터넷 문화와 팬덤 민족주의』. 김태연 외 역. 갈무리, pp. 125-157.
- 이경아 (2020). “중국과 대만의 여성지위 비교연구.” 『중국연구』. 제83호, pp. 171-203.
- 이선희 (2021). “현대 중국어 코로나19 언론 보도의 전쟁 은유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66호, pp. 151-166.
- 장정아 (2016). “‘본토’라는 유령: 토착주의를 넘어선 홍콩 정체성의 가능성.” 『동향과 전망』. 제98호, pp. 194-235.
- 친정환 (2016).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메갈리아’ 논쟁까지: ‘페미니즘 붐기’와 한국 남성성의 위기.” 『역사비평』. 제116호, pp. 353-381.
- 코넬 래윈 (2013).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 핀처 리타 흥 (2020). 『빅브라더에 맞서는 중국 여성들』. 윤승리 역. 산지니.
- 한담 (2021). “시진핑 시대, ‘항미원조’ 전쟁의 귀환과 문화 내셔널리즘.” 『중국인문과학』. 제79호, pp. 419-437.
- 허라금 (2000). “‘남성성’에 관하여.” 『여/성이론』. 제2호, pp. 94-113.
- Choi, Susanne (2018). “Masculinity and Precarity: Male Migrant Taxi Drivers in South China.” *Work, Employment and Society*. Vol. 32. No. 3, pp. 493-508.
- Hird, Derek (2016). “Making Class and Gender: White-Collar Men in Postsocialist China.” Kam Louie(ed.). *Changing Chinese Masculinities: From Imperial Pillars of State to Global Real Me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pp. 137-156.
- Hu, Tingting and Tianru Guan (2021). “‘Man-as-Nation’: Representations of Masculinity and Nationalism in Wu Jing’s *Wolf Warrior II*.” *Sage Open*. July-September, pp. 1-13.
- Lee, Min Joo (2020). “Intimacy beyond Sex: Korean Television Dramas, Nonsexual Masculinities, and Transnational Erotic Desires.” *Feminist*

- Formations*. Vol. 32. No. 3, pp. 100-120.
- Li, Xuan and William Jankowiak (2016). "The Chinese Father: Masculinity, Conjugal Love, and Parental Involvement." Kam Louie (ed.). *Changing Chinese Masculinities: From Imperial Pillars of State to Global Real Me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pp. 186-203.
- Lin, Xiaodong (2019). "Young Rural-urban Migrant Fathers in China: Everyday 'China Dream' and the Negotiation of Masculinity." *Norma*. Vol. 14. No. 3, pp. 168-182.
- Schneider, Florian (2018). *China's Digital Nation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ong, Geng and Derek Hird (2014). *Men and Masculinities in Contemporary China*. Leiden: Brill.
- Stevenson, Mark (2016). "Theater and the Text-Spatial Reproduction of Literati and Mercantile Masculinities in Nineteenth-Century Beijing." Kam Louie (ed.). *Changing Chinese Masculinities: From Imperial Pillars of State to Global Real Me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pp. 51-71.
- Wang, Zheng (2001). "Call Me Qingnian but not Funü: A Maoist Youth in Retrospect." *Feminist Studies*. Vol. 27. No. 1, pp. 9-34.
- Wong, Magdalena (2016). "Performing Masculinity in Peri-Urban China: Duty, Family, Society." Dr. Phil. Dissertation. London: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Yang, Wenqi and Fei Yan (2017). "The Annihilation of Fertility in Mao's China: Gender Inequality of Sent-down Youth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China Information*. Vol. 31. No. 1, pp. 63-83.
- Zheng, Tiantian (2015). "Masculinity in Crisis: Effeminate Men, Loss of Manhood, and the Nation-State in Postsocialist China." *Ethnográfica*. Vol. 19. No. 2, pp. 347-365.
- 杨国斌 (2016). "英雄的民族主义粉丝." 『国际新闻界』, 第11期, pp. 27-34.
- 周慧敏 (2017). "<战狼2>: 爱国主义的弘扬与男性气质的彰显." 『视听』, 第10期, pp. 43-44.
- 崔凯 (2020). "粉丝群体爱国主义网络行动的扩散历程: 基于对新浪微博'饭圈女孩出征'的探讨." 『国际新闻界』, 第12期, pp. 26-49.

2. 기타

- “周鹏之死: 一个被斥‘娘炮’的霸凌受害者引发的讨论.” *BBC 中文网*. 2021년 12월 15일.
- “中国缺<太阳的后裔>这样形象剧.” 『人民日报』. 2016년 5월 16일.
- “中国推动教育改革让男孩更有‘阳刚之气.’” *BBC 中文网*. 2021년 2월 8일.
- Liu, Petrus (2018). “Women and Children First: Jingoism, Ambivalence, and Crisis of Masculinity in Wolf Warrior 2.” <https://u.osu.edu/mclc/online-series/liu-rofel/#A>. (2021년 12월 26일 검색)
- World Economic Forum (2021).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https://www.weforum.org/reports/global-gender-gap-report-2021/in-full>. (2021년 12월 27일 검색)
- Zakaria, Shamim and Yan Ni. (2020). “Remember the Women Fighting Coronavirus: Female Medics are Leading the Frontline Battle in China, but a Lack of Attention to Women’s Sanitary Needs Irks Advocates.” <https://thediplomat.com/2020/02/remember-the-women-fighting-coronavirus/>. (2021년 12월 5일 검색)
- 畝客. <http://jionger.com/show/3965/&page=1>. (2021년 11월 3일 검색)
- 教育部 (2021). “关于防止男性青少年女性化的提案教育部答复了.”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1-01/29/c_1127043406.htm. (2021년 12월 21일 검색)
- 国家广播电视总局 (2021). “国家广播电视总局办公厅关于进一步加强文艺节目及其人员管理的通知” http://www.nrta.gov.cn/art/2021/9/2/art_113_57756.html. (2021년 12월 20일 검색)
- 百度. <http://baijiahao.baidu.com/s?id=1662507753068822213>. (2021년 12월 7일 검색)
- 百度贴吧. <https://tieba.baidu.com/p/1436176823>. (2021년 11월 15일 검색)
- 新浪网 (2019). “饭圈女孩出征开撕香港暴徒: 守护最好的‘阿中.’” <https://news.sina.com/gn/2019-08-16/detail-ihycitm9494693.d.html>. (2022년 7월 5일 검색)
- 新浪博客. http://blog.sina.com.cn/s/blog_43fdbf45010003vm.html. (2021년 11월 15일 검색)
- 嚴蕾 (2016). “臉書洗版: 中國父權家庭的狂歡.” <https://theinitium.com/article/20160125-opinion-china-taiwan-facebook-fatherhood-family-yanqiang/>. (2022년 8월 1일 검색)
- _____ (2016). “愛國小粉紅、粉絲戰爭, 與天朝主義賽博格.” <https://theinitium.com/article/20160722-opinion-yanqiang-pink-cyborg/>. (2022년 8월 1일 검색)
- 中国票房. “中国历史票房紅榜.” <http://www.boxofficecn.com/the-red-box-office>.

(2022년 4월 3일 검색)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시진핑, 전염병 방역 인민전쟁 총력전·저지전에서 꼭 승리 할 것.” <https://www.fmprc.gov.cn/ce/cekor/kor/xwxx/t1743145.htm>.

(2021년 12월 13일 검색)

韩寒 (2008). “回答爱国者的问题” <https://net.blogchina.com/blog/article/520018>. (2021년 11월 3일 검색)

虎嗅 (2016). “帝吧出征FB: 这李毅吧的‘爆吧’文化是如何形成的?” <https://www.huxiu.com/article/137749.html>. (2022년 8월 6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2년 08월 09일 |

| 논문심사일 : 2022년 08월 23일 |

| 게재확정일 : 2022년 09월 13일 |

| ABSTRACT |

Nationalism, Chinese Dream, and Masculinities in Modern China

Eungchel Lee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In recent years, there is strong tendency for nationalism and patriotism in China. This article examines the masculinities in Chinese nationalism and patriotism, and tries to interpret them in socio-cultural context of modern China.

In many societies, there are some stereotypes of 'manhood' or 'womanhood.' In fact, however, masculinity or femininity is not something fixed, but is constantly changing and exists in plural forms in every society. In ancient China, masculinity is categorized by the dichotomy of wen(scholar) and wu(warrior) and during the socialist revolutionary era, the image of a man with devotion and sacrifice was respected. In the context of nationalism and patriotism, an image of 'strong man' is emphasized while 'effeminate masculinity' tends to be excluded. The image of strong man is closely related to the Chinese dream, which aims to realize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nation.' In particular, the Chinese dream which links the development of a strong nation with individual prosperity of Chinese people, reveals the traditional patriarchal attitude that a man as a breadwinner need to have ability and responsibility for his family and his country. The masculinity that is reproduced in nationalism and patriotism is located at the point where national ideology and gender ideology meet.

Unfortunately, the emphasis on strong masculinity in Chinese society may be a social structural problem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f

the relationship of patriotism and masculinity is more regarded as important, it would be possible that some internal issues like gender politics in China are less considered seriously.

- Key words: Modern China, Nationalism, Masculinities, Patriarchy, Chinese Dream